

最近世韓國圖書館史抄

—1945. 8. 15~1950. 6. 25—

朴 熙 永

<目 次>

1. 朝鮮圖書館協會
2. 國立圖書館
3. 圖書館學校
4. 圖書館界

1945年 8月 15日 日本이 挑發한 第2次世界大戰은 日本의 降伏으로 말미아마 終戰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第2次世界大戰의 終戰으로 半世紀동안 日帝의 統治下에서 呻吟하던 韓國은 日帝로부터 解放되었다. 따라서 韓國의 모든 것이 韓國人의 것으로 되 돌아 왔으니 自然히 圖書館도 우리의 것이 되었고 우리의 손으로 새로운 出發을 하게 되었다. 突發으로 8.15의 解放을 맞이하였던 關係로 豫期할 수 있는 모든 被害를 未然에 防止하고 日本人이 運營 管理하던 全圖書館을 穩全하게 日本人으로부터 移管받고 秩序있는 새 出發을 하는 일이 當面하였던 課題이기에 圖書館人들은 朝鮮圖書館協會를 結成하였다.

1. 朝鮮圖書館協會

1945年 8月 30日 朝鮮圖書館協會가 結成되었다.

解放을 맞이한 直後 朴奉石氏와 金晉燮氏가 主動이 되어 結成한 朝鮮圖書館協會의 結成大會는 全國의 韓國人 圖書館從事者들이 一堂에 모여 各自가 勤務하고 있는 各圖書館을 아무런 被害없이 日本人으로부터 引受하는 方案을 講究論議하였는데 이것이 目的이었다. 그리하여 混亂하였던 解放直後인 當時 別로 被害를 보지 않고 우리는 日本人으로부터 全圖書館을 移管받게 되었던 것이다.

結成後 同協會는 評議員會議을 隨時 開催하여 圖書館 相互間의 連絡을 緊密히 하였고 또 새 國家의 圖書館이 나아갈 길을 摸索하였는데 討議內容의 一部를 본다면 分類法과 編目法의 全國統一問題와 全國圖書館網 組織問題 등이 있었는데 이러한 問題들을 繼續討議하였던 것이다.

解放 當時의 圖書館界 實情을 본다면 解放 1年前頃부터 第2次世界大戰의 戰勢가 日本에게 不利하여 各家

各圖書館들은 開店休業狀態로 되어 그러한 狀態가 繼續되다가 解放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圖書館界는 暫時나마 社會的으로 아무런 奉仕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實로 有名無實한 存在로 있었던 것이고 圖書整理技術面에서는 分類와 編目に 있어서 各圖書館은 各樣各色的 分類表와 目錄規程 例를 들어 韓國을 全然 無視하였던가 그렇지 않으면 日本을 爲主로 한 分類表와 目錄規程을 使用하고 있어서 그대로 使用할 수 없는 것을 使用하고 있었기 때문에 圖書館界가 새로운 出發을 함에 있어 여러 難問題가 가로 막혀 있었고 藏書內容에 있어서는 日本을 찬양한 圖書, 日本文學, 戰爭遂行을 爲한 圖書가 藏書의 大部分이어서 結成한 同協會는 여러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었다.

解放을 맞이한 圖書館界는 여러 解決해야 할 時急한 일들 中の 하나로 우리를 主로 한 分類法과 새로운 編目法을 갖는 일이었다. 解放을 契機로 하여 새로운 分類法과 새로운 編目法으로 새로이 藏書를 整理해야 하는 宿命的인 機會를 利用하여 새로운 分類法과 새로운 編目法의 編著와 아울러 分類法과 編目法을 全國의 圖書館들이 同一한 것을 使用한다면 閱覽者들에게도 便利할 뿐만 아니라 印刷카아드를 發行하게 될 때 또 綜合目錄을 編纂하게 될 때 有益할 것이라 하여 同協會는 이 問題를 論議하였던 것이다. 當時 아울러 論議된 案件中的의 하나인 圖書館網 組織問題는 各 圖書館들이 相互間에 有機的인 連帶를 맺고 體系的인 組織 속에서 共同으로 發展하여 나아가자는 問題도 또한 있었다.

結成 當時의 同協會는 朴奉石氏와 金晉燮氏가 主導者가 되었는데 朴奉石氏는 지금의 國立中央圖書館의 前身인 朝鮮總督府圖書館에서 十餘年間 勤務하였던 韓國人中에서 高位者였던 분으로 當時 日本文部省에서 施行하였던 司書檢定試驗에 合格한 司書인데 佛經의 分類에 있어서는 權威가 있었고 分類表私案이라는 韓國的인 分類表를 日政下에서 發表한 바 있는 분이었고, 金晉燮氏는 獨文學者이지만 聽川이라는 號를 가진 有名한 隨筆家이기도 한 분으로 지금의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의 前身인 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에서 十餘年間 勤務하신 西書의 分類와 編目に 있어서 權威가 있던

분이었다.

同協會는 1947年 4月 21日 第1回 總會를 國立圖書館에서 開催하였는데, 이 第1回 總會에서 當時 國立圖書館館長이던 李在郁氏가 會長으로, 常務理事에 朴奉石 金晉燮 兩氏가 被選되었다. 處理된 案件을 본다면 分類法과 編目法의 全國統一을 爲하여, 朴奉石氏가 編著한 國立圖書館에서 使用하고 있던 分類表인 朝鮮十進分類法(K. D. C.)과 編目規則인 朝鮮東書編目規則(K. C. R.)을 標準分類法과 標準編目規則으로 認定하게 되었고, 하편 「一郡一圖書館」이란 슬로건을 내 세우고 이 運動을 展開할 것을 議決하였다.

同協會는 事務室을 別途로 가지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協會의 一切 事務는 國立圖書館指導課에서 兼하여 執行하고 있었다. 當時 同協會의 事業中 그 하나로 地方圖書館에 對한 購入圖書의 斡旋事業이 있었다. 當時 交通과 社會秩序가 지금과 같이 安定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地方에서는 新刊圖書를 購入하지 못하고 있던 實情에 있었기 때문에 同協會는 創立精神에 立脚 地方圖書館에 對하여 이 問題를 解決토록 하기 爲하여 여러 新刊圖書中에서 適當한 것을 選定하여 各地方圖書館에 購入하여 送付하였는데 그 圖書代금은 勿論 各圖書館이 支拂하였다.

日政下 韓國의 圖書館界에는 韓國人 職員이 많지 않았다. 解放이 되자 圖書館을 우리의 손으로 運營하게 되어 많은 職員이 새로이 採用되었는데 이들 새로이 採用된 사람들은 圖書館業務에 對하여 知識이 없었다. 그러므로 圖書館運營에 支障이 莫大하였으며 이 問題를 解決하기 爲하여 同協會는 講習會를 開催하여 現職 圖書館職員에 對한 訓練을 實施하였는데 國立圖書館과 共同主催로 1948年 10月 12일부터 同 16일까지 5日間 第1回 講習會를 開催하였고, 第2回は 1949年 10月 21일부터 同 26일까지 6日間 圖書館事項講習會라는 名稱으로 開催하였다. 同講習會의 講師陣은 李在郁氏, 朴奉石氏, 金晉燮氏가 主가 되었는데 東書의 分類, 編目은 朴奉石氏가 編著한 朝鮮十進分類法과 朝鮮東書編目規則을 教材로 使用하였다. 同著書가 現在에 있어서는 圖書館學的인 面에서 여러 缺點을 內包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著書가 韓國圖書館界에 貢獻한 功은 잇을 수 없는 일이며 또 短時日內에 個人的 힘으로 完成되어 使用할 수 있었다는 일은 저으기 多幸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圖書館界가 安定되어 감에 따라 1949年 4月 10일부터 同 16일까지 1週日間 文教部の 後援으로 第1回 讀書週間을 開催하였는데 이는 讀書의 獎勵보다는 오히려 圖書館에 對한 一般國民의 理解를 促求하는데 重點을 두었던 一種의 圖書館運動이었던 것이다.

2. 國立圖書館

1945年 8月 15日 日帝로부터 解放되자 當時 朝鮮總督府圖書館의 韓國人으로서 가장 高位者이었던 朴奉石氏가 日本人으로부터 이 圖書館을 無事히 移管받았다.

地方文化를 爲하여 餘生을 받치겠다고 大邱 慶尙北道道廳에서 獻身하던 李在郁氏에게 朴奉石氏는 數三次 上京할 것을 懇請하여 國立圖書館長으로 推戴하고 解放直後 混亂 속에서 國立圖書館과 全國圖書館을 爲하여 盡力한 朴奉石氏가 副館長으로 任命되었는데 國立圖書館은 解放後 우리의 손에 依하여 運營하게 된 機關中 가장 速히 運營된 機關으로서 1945年 10月 15日 開館하였다. 開館으로부터 6·25事變 勃發時까지 國立圖書館은 事實上 國內 圖書館을 主導하였다.

開城에 疎開하였던 圖書를 되 찾아와 다시 제자리에 排列하였고 書庫 1層에다 함께 모아 싸울렀던 圖書도 제자리에 排列하여 開館을 爲한 準備를 完了하여 國立圖書館으로서 開館하였는데 새 國家 建設을 爲하여 國立圖書館은 많은 貢獻을 하였다. 既存 專門學校는 大學으로 昇格하였고 여러 大學들이 新設되었으며 其他 各種各級의 學校가 新設되었는데, 따라서 教科目이 늘었고 教授의 數조차 늘었는데 教育資料의 뒷받침을 國立圖書館이 하였고 또 雨後竹筍格으로 出版되는 圖書의 參考資料도 國立圖書館에서 많이 參考하였던 것이다.

새 出發을 하게 된 圖書館界의 懇切한 要望에 依하여 朝鮮圖書館協會가 開催하기 以前인 1947年 4月 22일부터 同 30일까지 9日間 57名의 受講生으로 圖書館事業講習會를 開催하였는데 1948年度부터는 前述한 바와 같이 朝鮮圖書館協會와 共同으로 開催하였다. 國立圖書館主催 1947年度 講習會의 特色으로 受講者가 宿所를 지금의 三清洞에 있는 學術院 建物로 定하고 宿宿하였는데 地方에서 모인 受講者들이 저녁에는 宿舍에서 各自 圖書館運營에 있어서의 여러 隘路라던가 參考가 될 事項들에 對한 相互意見을 交離하였다는 點은 特色있는 것이라 하겠다.

1947년부터 1949년까지 每年 夏節에는 仁川 月尾島에다 臨海文庫를 開設하여 避暑地, 遊覽地에서 奉仕하여 많은 成果를 거두었다. 1948년부터 各地方에 여러 圖書館이 繼續 新設되었는데 이들 新設 圖書館에 對하여 開館初期에 있어서의 不足한 藏書의 質과 量을 補強支援하여 주었고 또한 各地方圖書館으로 하여금 各地方民이 그 地方圖書館에 要求한 圖書를 貸出하여 출수 있도록 巡回文庫를 活潑하게 運營하였는데 國立圖書館의 巡回文庫를 主로 하여 國立圖書館分館으로부터 始作하여 後에 獨立한 圖書館으로 發展한 圖書館도 잇

었다.

3. 圖書館學校

解放을 맞이하여 우리의 손으로 새出發을 한 韓國의 圖書館界는 무엇보다도 人件的인 條件이 未備하여 莫甚한 支障을 받게 되었다. 各圖書館에 在職하고 있는 圖書館職員은 講習會를 開催하여 教育하는 일도 重要하고 若干의 解決을 볼 수 있었으나 根本的인 解決方法은 못 되었다. 젊은 圖書館人 專門圖書館人을 養成해서 恒久的인 解決方法을 樹立해야 하였기 때문에 專門圖書館員 即 司書職을 養成하기 爲하여 1946年 4月 1日 國立朝鮮圖書館學校가 國立으로 國立圖書館에 附設하게 되어 20名의 學生으로 開校하게 되었다. 圖書館學關係는 國立圖書館長 李在郁氏, 國立圖書館副館長 朴奉石氏, 서울大學校中央圖書館長 金晉燮氏, 朝鮮書籍印刷株式會社 支配人 崔長秀氏(崔長秀氏는 朴奉石氏와 함께 日本 文部省에서 施行한 司書檢定試驗에 合格한 분임)等 諸氏가 專擔하여 教授하였는데 이 學校의 履修年限은 1年으로 規定되어 있었으나 圖書館界의 切實한 要望에 副應하기 爲하여 第1期生만은 放學없는 講義를 強行하여 6個月로 所定の 講義를 끝내고 1946年 9月에 20名이 卒業하였다.

6·25事變이 勃發하기까지 第5回 卒業生을 輩出하였는데 總 78名이 教育을 마치고 卒業生 全員은 아니지만 많은 卒業生이 各圖書館에서 新進圖書館人, 專門職司書로서 圖書館界에서 活躍하였는데, 6·25事變으로 이 學校가 中斷되었고 또 卒業生中에서 여러 사람을 圖書館界가 잃게 되었음은 甚히 遺憾스러운 일이라 한다.

4. 圖書館界

1945年 8月 15日 現在 南韓에는 國立圖書館과 交通圖書館을 除外하고 14個의 公私立公共圖書館이 있었다. 그러나 第2次世界大戰이 終戰에 가까워지면서는 名目상의 圖書館이고 거의 閉館狀態에 있었고 開館하고 있었던 곳이 몇 館 있기는 하였지만 別로 利用者도 없이 있었다. 開館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解放을 맞이한 圖書館들은 그대로 門을 닫고 있었고 混亂 속에서 歲月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 圖書館이 없었던 地方에서는 새 圖書館設立의 運動이 일기도 하였다. 解放이듬해인 1946年 3月에는 春川에서 有志들에 依하여 私立으로 春川圖書館이 開館하게 된 것을 爲始하여 여

러 곳에 圖書館이 設立하게 되었다. 高靈에 民衆圖書館, 驪州에 우리글방, 江陵에 江陵圖書館, 永登浦에 永民圖書館, 晉州에 晉州圖書館, 開慶에 開慶農民圖書館等이 거의 私立으로 設立되어 開館하게 되었는데, 圖書館規模의 大小의 差가 있기는 하였지만 各地方의 有志들이 自己네 郷土와 地方民을 爲하여 熱誠으로 設立한 圖書館들의 數가 늘어갔다. 同年에는 閉館中이던 大田府立圖書館(大田市立)이 開館하여 閱覽을 始作하였다.

1947년에는 全州에 全州圖書館, 密陽에 密陽圖書館, 濟州에 濟州圖書館, 江華에 江華圖書館 等이 新設되어 開館하였다.

1948년에는 裡里에 裡里圖書館이 新設開館하였다.

1949년에는 三陟에 三陟圖書館, 全州에 全北圖書館 等이 新設開館하였다.

以上과 같이 해가 거듭되면서 新設 圖書館의 數가 늘어갔는데 新設圖書館의 大部分은 私立圖書館이었다.

그 中에는 私立으로 發足했다가 後에 市로 移管되어 市立이 된 圖書館도 數個館 있었다.

여기서 特記할 事實은 1946年 3月 1日 私立으로 設立된 春川圖書館은 1947年에 市로 移管되어 春川市立圖書館으로 運營하게 되었는데 1949년부터는 閱覽料의 徵收制度를 廢止하고 無料로 閱覽케 하였다는 事實과 아울러 1947年에 設立된 濟州道立圖書館과 1949年에 設立된 全北道立圖書館의 2個館이 各各 道立으로 設立되었다는 事實은 前者의 春川市立圖書館은 公共圖書館으로서 無料閱覽을 하였던 嚆矢이고 後者는 當時 協會關係者와 圖書館界指導者들이 構想하던 圖書館網組織의 一端이라고 하겠다.

學校圖書館이 지금과 같이 教育課程展開와 密接히 連結되어 있지는 못하였지만 아담한 圖書室을 設備하는 곳이 여러 곳 생겼는데 그 中에서도 서울中學校와 中央中學校 같은 곳은 熱意있게 運營되었고 國民學校에도 몇 個校가 圖書室을 施設하였는데 그 中에서도 南山國民學校는 熱意있게 施設되고 運營되었다.

特殊圖書館으로서는 韓國銀行, 殖産銀行, 京城電氣株式會社, 遞信部, 交通部, 外務部 等이 圖書館 乃至 圖書室을 活潑하고 充實하게 運營하였다.

以上 1945年 8月 15日부터 約 5年間の 圖書館界의 모습을 不足한대로 살펴 보았는데 解放後 混亂속에서도 比較的 圖書館界 만은 일찌기 秩序를 찾고 發展에로의 길을 걸다가 6·25事變을 맞이하였다.

